

# 북 남 관계 개선은 공화국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입장

지난 5일 평양에 온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들과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담화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력사를 써나가자는것이 공화국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천명하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남측특사대표단원행을 접견하시고 만족한 함의를 보신데 대한 소식은 지금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을 크나큰 격동과 흥분을 옮겨 해주고있다. 남조선의 진보민주정당들을 비롯하여 각계 단

체들과 인민들도 이 소식에 접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면서 북남관계가 더 빨리 전진하게 되리라는 기대와 락관을 표시하고있다. 세계의 광범한 여론도 북남의 관계개선노력을 지지찬동해나서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력사를 써나가자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이 새로운 북남관계대전환방침에는 북과 남이 과거에 없애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려

는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군사적대결과 불신을 해소하고 의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막으며 민족공동의 안녕과 조선반도평화를 수호하시려는 그의 확고한 평화애호리념과 뜨거운 민족애가 어러여있다.

위인의 뜻을 받들어 공화국이 새해정초부터 련이어 취한 주동적인 조치들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사이에는 화해와 관계개선의 따듯한 분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의 대사로 여기고 잘 도와주기 위해 공화국은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드높이였다.

특히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

식에 참가하고 남조선대통령을 만나 경에하는 원수님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그의 뜻을 구두로 전하였다. 남조선대통령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올림픽에 북측고위급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친서와 구두인사까지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공화국은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폐막식에도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하여 관계개선을 추동하였다.

이번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고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만찬을 마련해주시는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자주통일을 앞당겨오려는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자!

누가 말했든가, 봄은 산천에 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깃든다고...

아마도 이해의 봄은 류달리 계절을 앞당겨 찾아든듯싶다.

봄이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은 산야에 아를거리는 아지랑이와 더불어 연봉홍망울이 지는 전달 데밀기나무를 떠올릴것이다.

그러나 겨레의 가슴마다에 그려지는 봄은 결코 자연계의 정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천하를 뒤흔드는 장쾌한 우리마당 온 겨레에게 희망과 활력을 알리는 서곡과 같은 봄이다.

돌아보면 어느때없이 폭설도 많이 내리고 강추위로 지속되어 온 겨울은 마치 오랜 기간 동결 상태에 있던 북남관계를 그대로 냉상계 하였다.

하다면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겨레의 가슴들을 뿡뿡 울려준 통일의 봄우리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민족적대사

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새해의 려명이 밝아오는 첫 아침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과 적대의 동태우에 울려 퍼진 화해와 단합의 힘있는 선언이었으며 삼천리조국강토에 통일의 새 아침을 불러오는 장쾌한 봄우리가였다.

그 위대한 봄우리가 차디찬 대결의 장벽을 눈이처럼 녹여 버리며 최극단으로 치닫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생기와 활력으로 풀려버리게 하였다.

진정 후더운 봄, 우리 민족끼리의 봄이다.

화해와 단합의 봄기운은 분열된 겨레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아픔을 씻어 버리고 민족의 강용한 위상과 통일의지를 만방에 떨치는 장엄한 화폭을 펼쳐놓았으며 통일을 갈망하는 열민 술결들은 그대로 혼향이 되어 자주통일의 열풍을 안아오게 하였다.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기는 법이다.

은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으로 이 봄을 더 잘 가꾸어 화해와 통일지향의 분위기를 한껏 무르익혀나갈것이다.

단상

## 류다른 봄에 대한 생각

조국통일의 새봄을 안아오기 위한 위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입니다.

열화같은 민족애와 투철한 자주주의지로 가슴 불태우시며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신 절세위인의 우렁우렁하신 음성들을 들을 때 우리 겨레는 물론 온 세계가 얼마나 세찬 격정으로 뿔어버진것인가.

민족적화합과 통일을 위한 활로를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곧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지겨진 새로운 희망의 불길이었고 대결

최수영

##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위업수행을 힘있게 추동하는 노래가운데는 지난 2002년에 창작된 가요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류동호 작사, 황진영 작곡)도 있다.

해수는 백두산은 내 조국입니다  
제주도 한나산도 내 조국입니다  
백두와 한나가 서로 손을 잡으면  
삼천리가 하나되는 통일이여라

다. 남녘겨레들도 한식술인 북과 남의 형제들이 서로 정을 합치면 우리 민족 하나되는 통일이라는 노래가사를 따라부르며 공연분위기를 고조시키었다.

노래에도 있듯이 백두산도 내 조국, 한나산도 내 조국이다.

남녘의 동포들이 꿈에도 그리며 달려가고싶어하는 곳이 백두산이라면 북녘의 겨레가 한시바빠 가고싶어하는 곳도 조국의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와 한나산이다.

백두산에 대한 그리움, 제주도 한나산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통일에 대한 그리움이고 우리 겨레 하나되는 강렬한 열망이다.

겨레의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합치고 합쳐져 백두산천지의 맑은 물이 한나산의 수정같은 백록담의 물과 합수되기도 하고 백두산정에서 낮을 울린 죽도종단대 행진의 장엄한 물결이 남녘을 향해 굽이쳐가기도 하였다.

백두산과 한나산이 손을 맞잡으면 삼천리가 하나가 되듯이 북남의 겨레가 손을 잡고 힘을 합치면 그토록 바라던 통일이 온다.

지금 조선반도에서 불고있는 민족적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의 따듯한 바람은 화해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민족의 열망을 뜻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련합뉴스》도 《통일노래 안고의 평양시녀들》이라는 보도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북측원단이 숙소로 리용한 린제스피디호텔에 있는 (한) 반도모양계시관에는 이들이 쓴 통일 념문자가 빼곡하게 남아있다.

단원들이 남긴 메세지는 대부분 (민족대단결), (잡은 손 날자), (통일의 날 다시 만나자), (자주평화통일), (통일의 봄이 온다) 등 민족화합과 통일을 열망하는 내용이다.

(한) 반도모양계시관의 백두대간부분에는 북측지역에서부터 산맥을 따라 커다란 글씨로 (백두대산줄기)라고 써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전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백두와 한나는 마침내 손을 잡았다. 잡은 손 놓지 말자고 북과 남의 겨레는 목메어 웨치고있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민족의 위상과 통일의지를 과시하고 북남관계개선에로 나아가고있는 그 기세로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뜻과 힘을 합치고 마음과 정을 나누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길로 노드쳐나가야 한다. 지난 6.15통일시대처럼 높고 낮은 련봉들을 뽕게 물들이며 황홀한 신비경을 펼쳐는 백두의 장

펼쳐야 한다.

백두에서 한나까지 삼천리 아름다운 이 강토를 하나로 통일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것은 우리 겨레모두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백두에서 한나까지 뻗어간 통일무지개우에 통일조국의 세력사를 새겨갈 겨레의 열의인양 노래소리가 높이 울린다.

백두에서 조국통일 해맞이 하고  
한나에서 통일만세 우리 함께 부르자  
민족의 몽친 힘은 세상에 떨칠 때  
태양조선 하나되는 통일이여라

...  
본사기자 김철민

정녕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노래이다.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떨치며 거연히 솟아 빛나는 조종의 산 백두산, 여기에서 뻗어간 백두대산줄기는 삼천리강토를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주고있다.

백두에서 한나로 이어지는 이 땅우에서 우리 겨레는 오랜 세월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왔다.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로 한강토우에서 반만년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의세가 강요한 민족분립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얼마전 남조선의 강릉과 서울에서 진행된 공화국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온 겨레가 화목하게 모여살 통일의 그날을 그려보며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을 목청껏 불렀



남조선에서 진행된 삼지연관현악단공연의 한 장면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성가를 축하하는 남조선인민들

## 《평창올림픽은 통일올림픽이었다》

제미동포전국련합회가 2월 26일 홈페이지에 《평창올림픽은 통일올림픽이었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평창올림픽은 우리 겨레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보여주었고 많은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특히 통일조국의 달콤함을 미리 맛보게 해준 통일올림픽이었다.

올림픽개막식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때문에 올림픽이 실패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근심을 헤아린듯 북은 민족의 대

경사를 성공시키는것이 동족으로서 용당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하늘길, 바다길, 땅길을 통해 막혔던 민족의 혈맥을 남북이 올림픽에서 온 삼천리참으로 많은것을 보여주었고 많은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특히 통일조국의 달콤함을 미리 맛보게 해준 통일올림픽이었다.

올림픽개막식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때문에 올림픽이 실패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근심을 헤아린듯 북은 민족의 대

경사를 성공시키는것이 동족으로서 용당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하늘길, 바다길, 땅길을 통해 막혔던 민족의 혈맥을 남북이 올림픽에서 온 삼천리참으로 많은것을 보여주었고 많은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특히 통일조국의 달콤함을 미리 맛보게 해준 통일올림픽이었다.

올림픽개막식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때문에 올림픽이 실패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근심을 헤아린듯 북은 민족의 대

경사를 성공시키는것이 동족으로서 용당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하늘길, 바다길, 땅길을 통해 막혔던 민족의 혈맥을 남북이 올림픽에서 온 삼천리참으로 많은것을 보여주었고 많은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특히 통일조국의 달콤함을 미리 맛보게 해준 통일올림픽이었다.

올림픽개막식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때문에 올림픽이 실패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근심을 헤아린듯 북은 민족의 대

경사를 성공시키는것이 동족으로서 용당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하늘길, 바다길, 땅길을 통해 막혔던 민족의 혈맥을 남북이 올림픽에서 온 삼천리참으로 많은것을 보여주었고 많은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특히 통일조국의 달콤함을 미리 맛보게 해준 통일올림픽이었다.

올림픽개막식 며칠전까지만 하여도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때문에 올림픽이 실패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근심을 헤아린듯 북은 민족의 대

## 남조선에서 《미국규탄대회》 진행

얼마전 남조선에서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중민주당, 평화협정운동본부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이 미국대사관앞에서 《남북관계개선 방해하는 미국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수백명의 각계층 인사들은 《미국은 남북대화 방해말고 (한) 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이번 겨울철올림픽을 통해 우리 민족사이에 대결을 조장하며 자기들의 더러운 리익을 추구해온 미국은 결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이 분명히 밝혀졌다.》면서 《미국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일체의 개입과 간섭을 금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핵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한) 미합동군사연습부터 영구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유린하고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를 모아 (한) 미합동군사연습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나갈것》이라며 오는 4월 7일에 2차 《미국규탄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의장은 발언에서 《대북적대정책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한) 미합동군사연습은 남북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이제 우리는 전쟁과 위기만을 조장하고 민족의 리익을 강탈할뿐인 침략군사연습은 남북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이제 우리는 전쟁과 위기만을 조장하고 민족의 리익을 강탈할뿐인 침략군사연습은 남북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이제 우리는 전쟁과 위기만을 조장하고 민족의 리익을 강탈할뿐인 침략군사연습은 남북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이제 우리는 전쟁과 위기만을 조장하고 민족의 리익을 강탈할뿐인 침략군사연습은 남북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이제 우리는 전쟁과 위기만을 조장하고 민족의 리익을 강탈할뿐인 침략군사연습은 남북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이제 우리는 전쟁과 위기만을 조장하고 민족의 리익을 강탈할뿐인 침략군사연습은 남북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이제 우리는 전쟁과 위기만을 조장하고 민족의 리익을 강탈할뿐인 침략군사연습은 남북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본사기자